

A Successful Candidates of the 114th Professional Engineer Packing

제114회 포장기술사 최종합격자

(사)한국포장기술사회(회장 이한영)는 제114회 기술사 자격시험에서 9명의 포장기술사가 합격했다고 밝혔다.

올해 탄생한 포장기술사는 ▲강호상 (주)삼화플라스틱 부사장, ▲김기돈 신안포장산업(주) 부장, ▲김병기 파리크라상 과장, ▲박인경 롯데중앙연구소 책임연구원, ▲서상욱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선임, ▲윤찬석 국가식품클러스트지원센터 부장, ▲정부기 (주)신세계 부장, ▲정현구 삼성전기 선임, ▲조해룡 (주)연우 부장 등으로, 이로써 국내 포장기술사는 총 160명으로 늘어났다.

포장기술사는 포장분야의 최고 기술전문사로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포장의 기술적 발전과 적합한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국내 포장기술사는 (사)한국포장기술사회를 중심으로 국내 포장문화 진흥에 주력하고 있다.

제114회 포장기술사 합격자들과 만나 포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 편집자 주 -



“기능성 화장품 패키지 연구로 세계 시장 진출”



강호상
(주)신화플라스틱 부사장

Q. 먼저 제114회 한국포장기술사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포장기술사 시험준비를 하면서 새삼 부족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론적 체계가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고 채움을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는 자세를 견지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는 자세로 빈 그릇을 채우듯 자신을 채워가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Q.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화장품업계에 26년째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자재구매 업무와 생산총괄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는 화장품 패키징 자재를 제조하는 회사의 총괄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패키지디자인, 구조설계, 금형설계, 금형제작, 사출성형, 후가공(증착, 코팅, 내코팅, 인쇄, 박, 레이저커팅, 디지털프린팅 등), 패키지 용기의 ASSY조립, 검사, 포장, 물류 등 화장품 패키징과 관련한 공급망 상의 모든 공정을 다루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Q. 포장기술사 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한 분야에서 전문 기술인이 된다는 것은 참 매력적인 일입니다. 늘 꿈꾸던 희망이었습니다. 실무분야는 경험을 통해 채득하고, 성실함으로 스스로를 단련하였는데, 학술적으로 체계화를 정립하는 것에 늘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R&D기술과제의 총괄책임자를 역임하며 과제를 이행하면서, 포장

기술사란 인증제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무를 챙기며 공부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계의 선배님과 동료, 무엇보다도 당사 조휘철 회장님의 강력한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성실히 공부하였고, 김 청 회장님의 열정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Q. 시험 준비 중 생긴 에피소드를 소개한다면?

시험 보기 하루 전 토요일에 잠을 피하려고 회사 뒤편의 아직 눈이 녹지 않은 야산에 올랐습니다. 햇살 좋은 구릉을 찾아 정리노트를 반복해 읽던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앞으로 두 번 다시 찾아올 것 같지 않은 학구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도전할 수 없을 것 같아 노력했습니다. 다시 하라고 한다면 못 할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에 종사하는 기술사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상품의 품질과 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지식을 체계화 하고, 기술 인력으로써 장인정신을 갖고 현장 실무를 풀어나가는 한편, 후배들을 양성하여 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구심점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화장품 패키징 분야에는 포장기술사가 거의 없습니다. 최근 화장품 및 화장품 패키징의 해외 진출이 커지고 있는데, 화장품 패키징 분야에서도 전문 기술인력인 포장기술사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더불어 저희 회사에서 기술과제로 삼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 패키지 연구를 심화해 세계시장에 폭풍을 일으킬 포인트메이크업, 페이스메이크업 패키징 용기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회사가 성장하는 것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향상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골판지분야 포장기술사로 산업 발전 기여할 것”



김 기 돈
신안포장산업(주) 상자영업팀 부장

Q. 먼저 제114회 한국포장기술사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간절하게 소망했던 대한민국 최고의 포장전문가 그룹인 ‘포장기술사’라는 영광스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주말과 저녁시간을 온전히 나에게 양보해준 가족들에게 감사드리며, 혹시라도 소홀했을지 모를 많은 선·후배 및 지인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Q.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현재 골판지, 골판지상자 전문제조기업인 신안포장산업(주)의 상자영업팀 부장으로, 신규 거래선 개발 및 고객관리 지원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010년 8월까지의 제지, 골판지, 골판지상자 전문 제조기업인 태림포장공업(주)에서 상자영업 4팀 팀장으로서 근무했었습니다.

Q. 포장기술사 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매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전통방식의 영업패턴에 지치고 힘들어하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던 중 평소 존경하던 선배 기술사님의 적극적인 권유와 지원으로 퇴근 후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쉽게 생각하고 시작했던 것과는 달리 공부만만치 않았습니

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학문과 연계된 융·복합 학문인 포장을 공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식품, 농산물, 연포장, 금속 캔, 유리병, 플라스틱, 골판지, 물류 등 포장산업 전반에서 사용되어지는 간단한 용어조차도 낯설고 어색해 수 없이 쓰고 지워가며 외워야만 한 페이지의 진도라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부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졸린 눈을 비벼가며 밤샘해야만 했던 것이 가장 힘든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Q. 시험 준비 중 생긴 에피소드를 소개한다면?

A. 필기시험 하루 전날인 토요일, 업무 특성상 월요일 아침에 보고할 월 매출실적 보고서 준비를 오후 6시까지 하고, 마지막 정리를 밤을 새가며 준비한 덕분에 1차 시험을 비몽사몽간에 치렀습니다. 물론 결과는 보기 좋게 불합격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심기일전한 덕분에 지금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국내 최초의 골판지분야 포장기술사로서 골판지산업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한편,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현재에 자만하지 않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전문 교육과 선진기술들을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품기획, 개발, 물류, 사용, 폐기, 재활용 등 전 과정에서 포장기술사의 고민과 흔적들이 ‘최적의 적정포장’으로 선택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포장컨설팅’로서의 역할과 후배 골판지상자전문 포장기술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뷰

“소비자, 사회, 환경이 원하는 포장 개발”



박인경
롯데중앙연구소 포장연구팀
책임연구원

Q. 먼저 제114회 한국포장기술사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신입사원 때부터 ‘포장기술사’인 선배님들을 보면서 동경의 대상, 언젠가는 꼭 해내고 싶은 목표였는데 이번

에 그 꿈을 이루게 되어 기쁩니다. 시험 준비 과정도 힘들었고, 꼭 이루고 싶었던 것이어서 포장기술사 합격이 그 어떤 시험을 합격했을 때보다 만족감과 성취감이 컸습니다.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Q.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현재 식품종합연구소인 롯데 중앙연구소 포장연구팀에서 근무하면서 연포장, 캔, 플라스틱용기, 종이 포장재 등 다양한 포장 타입을 다루고 있으며, 제품 특성에 맞추어 포장재질 설계 및 신규 소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Q. 포장기술사 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포장 업무를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잘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포장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Q. 시험 준비 중 생긴 에피소드를 소개한다면?

A. 시험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 해외출장이 잡혔습니다. 공부 걱정에 요약 노트를 들고 출장길에 올랐고, 출장 내내 노트를 한시도 손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노트를 한장도 제대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끝내 출장지에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고, 이 요약노트는 짐이 되었지만, 마음만은 편안케 해주는 위로제가 되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시험 합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신기술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 소비자, 사회, 환경이 원하는 포장을 개발하고 포장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포장운송환경분야 연구, 지속적으로 할 것”



서상욱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물류안전평가센터
선임기술원

Q. 먼저 제114회 한국포장기술사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2018년 포장기술사에 합격해 매우 기쁘며 항상 노력하는 부끄럽지 않는 포장기술사의 일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패키징기술센터에서 10년, 물류안전평가센터에서 3년(현재)까지 총 13년을 근무하여 왔습니다.

관련 업무로는 항공위험물 포장 검사, 과대포장 검사,

ISTA(국제안전수송협회) 등의 포장운송안전성시험 등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신뢰성시험(진동, 충격, 환경(온도) 시험 등)분야에서 시험평가를 10년간 병행하였으며 현재는 물류(포장 운송 환경) 및 패키징(HMR, 신선물류)분야 국가 R&D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포장기술사 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한 선배 기술사께서 2~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조언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포장 분야의 지식을 확대하고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업계의 많은 분들과 만나 뵙고 싶은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었습니다.

Q. 시험 준비 중 생긴 에피소드를 소개한다면?

A. 시험 준비는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포장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느끼시는 것과 동일하게 기술사 공부와 회사 업무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게 다가왔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중간에 A형 독감 확진을 받고 일주일동안 방에서 일어나지도 먹지도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일주일간 잠만 잔 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억은 기술사 합격을 했을 때 더 큰 기쁨으로 보상이 되었고, 이 성취감은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만드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KCL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의 향후 계획은 국내의 포장 운송 환경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국제적으로 미국의 ISTA(International Safe Transit Association : 국제안전수송협회)가 가장 역사가 깊고 신뢰성이 높은 시험 규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도 점차 규격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포장운송 환경규격이 유통포장의 제품 안전성 향상과 적정포장의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포장 운송 환경 분야에서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고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국내 포장 운송 환경 분야가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업계, 패키징에 대한 인식 높일 것”



정 부 기
(주신세계상품과학연구소 부장)

Q. 먼저 제114회 한국포장기술사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포장기술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몇 번의 고배를 마셨지만 주변 여러 지인 분들의 도움으로 끝까지 포기

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 좋은 성과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합격자 발표날, 결과를 보고 그 동안 시험을 준비했던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많이 기쁜 한편으로 내 자신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걸 알기에 또 다른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 분들께 누를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포장기술사 시험을 함께 준비하면서 항상 격려해주고 도움을 준 동기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시험 준비하느라 주말을 함께하지도 못하고 가족행사도 참석하지 못 했지만 옆에서 항상 격려와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가족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인터뷰

Q.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저는 유통업체인 백화점 연구소에서 품질경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 분야는 식품부문으로, 제조 협력회사의 Audit 업무를 비롯해 백화점 점포 영업의 준법지원, 판매하는 PB, NB 상품과 포장재의 품질 검증 및 법적사항 등 종합적인 품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포장기술사 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5년 전 PB 신제품을 출시할 때, 판매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곰팡이, 이취 등이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품의 원료, 공정단계 등을 개선하며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포장기술사 분을 소개받아 포장재 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그 후 패키징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본격적인 포장기술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시험 준비 중 생긴 에피소드를 소개한다면?

A. 포장기술사 필기시험 합격 후 첫 번째 면접 날에 회사에서 노타이로 근무하다가 그대로 면접을 보러 가게 됐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10여년 전부터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의 노타이 근무를 하다 보니 넥타이 챙기는 걸 깜박 잊어버렸습니다.

면접장에는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있었고, 남자 면접자 분들은 저만 제외하고 모두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면접에서 낙방한 후 계속 머릿속에서 넥타이가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면접날에는 면접장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자연스럽게 넥타이를 댔습니다. 넥타이

를 착용하고 나니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Q.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유통업체의 상품 패키징에서는 주로 디자인을 추구해 마케팅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그러나 최근 패키징에는 상품 보호, 편리성, 소비자 정보 제공 등 패키징의 기본 기능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원순환 측면의 폐기물 처리 등 친환경 기능까지 폭넓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유통업체가 패키징 분야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포장기술사들이 유통업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적합한 패키징 연구”



조 해 룡
(주연우엔지니어링팀 부장)

Q. 먼저 제114회 한국포장기술사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화장품 포장재 분야와 자사에서의 첫 번째 기술사가 목표였는데 전자는 동종업계 분이 함께 합격해서 실패했지만, 자사 첫 번째 포장기술사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 그리고 자녀와 함께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며 유대 관계를 깊게 하는 행복도 느낄 수 있는 수험 기간이었습니다.

Q.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화장품 포장재 전문 제조업체인 YONWOO에서

화장품 1차 포장재를 설계 및 테스트, 승인하는 업무를 2001년부터 현재까지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연우는 세계 100대 화장품기업 중 40여개 글로벌 회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YONWOO-PKG 미주지역과 YONWOO-EUROPE 유럽지역의 해외지사와 파트너십을 갖고 지속적으로 글로벌회사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연우의 제품은 SDP(Standard Development Project, 연우에서 직접 고객에게 제안하는 디자인 제품)와 CDP(Customer Development Project, 고객에게 콘셉트 제안부터 프로젝트 수주, 제품 개발, 생산, 납품까지 고객 요구에 맞춘 제품)로 크게 구분되는데, YONWOO는 IN-House-system(공장 내에서 디자인-제품설계-금형제작-생산-후가공-조립-포장의 공정을 완료)으로 크게 주목받으며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Q. 포장기술사 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오랜 기간 화장품 포장재 업계에 근무하면서 경력은 오래 되고 지식은 쌓였으나 객관적으로 딱히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매김하고 있었


습니다.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시험 준비 중 생긴 에피소드를 소개한다면?

A. 시작할 당시에는 첫째 아이가 고3이어서 같이 공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휴가도 가지 않고 공부를 했지만 첫해에 첫째는 대학에 붙고 저는 떨어지는 불운을 겪으며 아이에게 조금 창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해 합격하면서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되어 기쁩니다.

Q.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근래의 화두는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로, 자사의 창고도 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 및 공정에 로봇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립 및 포장을 위한 인원 비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습니다. 조립, 포장비용을 줄일 수 있는 스마트 패키징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한국포장협회
KOREA PACKAGING ASSOCIATION INC.

(사)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해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TEL. (02)2026-8655
E-mail : kopac@chollian.net